

합동전화
로카디파파, 2017년 11월 18일

목표, 일치된 세계

(목차)

1. 시작인사

-에우도와 레이디벨의 노래와 베네주엘라 발렌시아와의 통화

2. 카스텔간돌포의 남녀 젠들과 마닐라와 연결

- 강당과 마닐라 젠들의 인사

3.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 하루를 바꿔 주는 주사위 던지기

한 학교의 교장과 한 가톨릭 주교는 무엇을 공유하나? 관계를 구축하고 개선하는 촉매제가 되는 놀이

4. 스페인, 바르첼로나와 연결

5. 그로타페라타 - 이탈리아. 줄리오와 피나: 매일 매일 다시 반하기.....

결혼이 예상치 못한 도전을 지니고 있을 수 있음을 줄리오와 피나는 잘 알고 있는데, 22년전 평상시와 다른 없던 어느 날, 뇌졸중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바꿈. 그들 스토리의 일부

6. 아이보리 코스트, 만과 연결

7. 윌리스와 푸투나의 플래시 뉴스

8. 카를로 카사벨트라메: 관계를 엮어가기 위한 여행 중.....

마르코 아레오티와의 인터뷰에서 - 로카디파파 2017년

9. 필리핀, 다바오 - 비디오 게임 장소에 우정을

아이들의 비디오 게임 중독 문제를 느끼며 라니는 말빈과 포콜라레 공동체와 함께 그들의 재능을 활용하게 하여, 부카스 팔라드 축구팀 탄생

10. 끼아라 루빅: 목표, 일치된 세계

젠 운동 20주년의 끼아라 루빅 인사에서-카스텔간돌포, 1987년 2월 2일

11. 카스텔간돌포의 남녀 젠들과 마리아 보체 (엠마우스) 연결

- 2명의 젠 그리고 엠마우스와의 대화

12. 끝 인사

1. 시작인사

(에우도 리베라, 레이디벨 메사와 비르지니아: 베네주엘라 음악 “Alma Llanera”- 박수)

에우도 리베라: Hola todos! 전 세계 모든 분들께 인사 드리며, 특별히 라틴 아메리카와 베네주엘라에 인사 드립니다. 춤을 추신 비르지니아께 감사 드리고, 연주 해주신 레이디벨께도 감사 드립니다. 알아채셨겠지만, 우리 셋은 베네주엘라 인인데, 여러분에게 우리 음악으로 우리 나라 식의 인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합동전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

저는 에우도이고, 사제이며, 20 년 이상 본당 사제, 선교사로 그리고 콜롬비아 접경지인 베네주엘라의 ‘와유우’ 원주민 사이에서 교사로 지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여기 로마의 사제 포콜라레에 살고 있는데, 제 동료 사제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하기 위해 이 곳에 저와 함께 있습니다. (박수)

우리가 한 우연의 일치로 베네주엘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마라카이보에는, 오늘 11 월 18 일이 키쿠크라 성모님을 기념하는 대 축일입니다. 조금 후에 대성당 광장에서 성모님을 기념하는 축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마라카이보에 특별한 인사를 보냅니다. (박수)

평소처럼 이 번 합동전화에서도 여러 나라를 가볼 것입니다.

저의 조국 베네주엘라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몇 년 전부터 총돌, 폭력, 항거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식량, 의약품과 많은 것들의 부족을 가져오고 삶을 힘들게 합니다.

베네주엘라의 외곽지, 과과마야의 콜리나스에 있는 오펠리아와 연결하고자 합니다 오펠리아, 어떻게 지내세요?

오펠리아 토레스 데 몰리나 (여) (in spagnolo): Hola!

에우도: 반갑습니다, 오펠리아! (박수)

오펠리아: 저도, 우리도 반갑습니다!

에우도: 2년 전에 그 곳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은 여러 다른 종교에 속하고, 정치적 이념도 다르지만 정말 한 공동체이기에, 여러 분 공동체와 지냈던 아름다운 순간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오펠리아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오펠리아: 베네주엘라에서 살고 있는 식량, 의복, 의약품 부족 등,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음 속에는, 하루 또 하루 살아 갈 수 있는 "주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식량이 없으면 쌀 봉지를 나누고, 수천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달하는 의약품 등 모든 것을 나눕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구별 없이 모든 것을 나눕니다. 각자 다른 이를 염두에 두고, 삶이 순환되고, 공동체는 자라납니다.

올 해는 일시적인 포콜라레가 우리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일상적인 폭력과 불확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현존은 하나의 불꽃과 같이, 우리를 끌어 당기고 많은 이에게 희망을 줍니다. 차오!

모두: 차오!

에우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박수)

WhatsApp 00393428730175 번으로, collegamentoch@focolare.org 와 Facebook: CollegamentoCH 페이지로 여러분의 느낌과 인사를 보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카스텔간돌포의 남녀 젠들과 마닐라와 연결

에우도: 이제는 포콜라레 운동 모임 장소인 카스텔간돌포 마리아폴리 센터로 가 보겠습니다. 그 곳에 바올로 발두치가 있습니다. 바올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올로 발두치: 차오 에우도, 로마 근교인 여기 마리아폴리 센터에 와 있는데, 며칠 전부터 180 명의 포콜라레 운동의 젊은이, 젠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약속인 2018 년 젠 페스트를 위해 일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모여 왔습니다.

젠 축제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나는 오늘 오후부터 여기에 와서 이 젊은이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적어도 몇 명만이라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여기 세 명의 젊은이가 있는데, 어디서 왔지요?

살렘 (남): 시리아에서 온, 살렘, 아실, 나디르 입니다.

바올로: 시리아에서 온 3 명의 젊은이인데, 전쟁으로 고통 받는 나라의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아름답지만, 일상적인 것은 아니므로, 감사하며, 카스텔간돌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

그리고 말리에서 온 미셀이 있는데, 여기 국제 대회에 처음 참석한다고 했지요?

미셀 (남): 네, 미셀이고 말리에서 왔습니다. 이 번이 첫 번째 국제 젠 대회 입니다.

바올로: 말리에서 포콜라레를 알았나요?

미셀 (남): 내 우리 나라에서 포콜라레를 알았는데, 그 후로 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바올로: 삶이 바뀌었다고요. 잘 왔어요. (박수)

피부색으로 보아 더 동양인 것 같은데, 이름이?

락스만: 나는 네팔에서 온 락스만 입니다.

바올로: 네팔에서 왔다고요! 정말 국제적임을 느낄 수 있네요. 그리고 포르투갈의 마리아와, 체코의 프란치셰크에게 이 기간 동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달라고 청했는데, 그럼 프란치셰크 일단 여러분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 얘기해 주겠어요?

프란치셰크: 바올로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4 대륙 41 개국 에서 180 명이 모였어요. 우리는 단지 대표로 왔는데, 나는 체코 공화국에서 혼자 왔지만 이 합동전화에 많은 이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요.

바올로: 마리아, 요사이 열심히 일들하고 있는 것 맞지요?

마리아: 네 맞아요. 요사이 우리는 현재의 젊은이들이 어떤지, 우리의 도전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도전 중 하나는 바로 형제애의 문화를 건설하는 것으로, 우리가 쟈 축제를 위해 일하는 근본 중의 하나예요.

바올로: 언제, 어디서 쟈 축제를 할 거예요?

마리아: 마닐라에서 내년 7월 6일에서 8일까지 열릴 것이예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쟈 축제 후에 우리가 할 것으로, 쟈 축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년 뒤에 있을 쟈 축제까지 우리의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바올로: 좋아요. 혼선을 피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마닐라에서 7월 6일부터 8일까지지요. 필리핀에서는 한 번도 쟈 페스트를 하지 않았었는데, 정말 국제적인 차원임을 이 곳 로마에서 그룹으로 쟈 페스트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도 보여 줍니다.

알제리의 무슬림인 아민과 일본의 불교 신자인 교코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기 있는 것이 좀 예외적인 경험이지요?

아민: 네, 우리도 전 세계의 쟈들과 함께 쟈 페스트를 준비할 수 있어 무척 기쁩니다.

바올로: 좋습니다. 쟈 페스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카스텔간돌포에도 놀라운 선물이 부족하지 않은데, 내 뒤에 마리아 보체, 엠마우스가 앉아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드립니다. (박수) 나중에 다시 연결할 때 엠마우스와 함께 쟈 페스트의 의미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인사를 보내온 필리핀 젊은이들 덕분에, 지금 즉시 마닐라로 가 보겠습니다.

그레이스(여): 차오 엠마우스! 모두 차오! Hello!

모두: Mabuhay!

그레이스 (여): 저는 그레이스이고, 2 쟈 본부 비서국과 필리핀 쟈들과 함께 (모두 함께 인사) 내년엔 쟈 축제를 하게 될 세계 무역 센터 앞에 있습니다.

남자 쟈: 지금은 아시안 정상 회담이 열리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지만, 장소만이라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레이스(여): 우리는 쟈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대학, 본당과 다양한 배경의 젊은이 그룹을 초대하고 있고, 필리핀 주교님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쟈 축제를 소개하러 가는 모든 곳에서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경계를 너머 가도록 노력하는데, 이는 일치된 세계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남자 젠: 최근에 예술가들을 위한 오디션을 조직했었는데 정말 흥미진진 했습니다.

그레이스 (여): 젠 축제 참가 신청을 개방했으니, 원하는 이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엠마우스, 신청하셨어요?

소셜 계정을 통해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남자 젠: 페이스 북, 인스타 그램, 트위트를 통해 우리와 함께 2018 년 젠 축제를 준비합시다!

해시 태그 (#) 'Beyond all borders' 사용도 잊지 마세요.

함께(in tagalog e poi in inglese): 이 곳 마닐라에서 만나요.

2018 년 젠 축제 모든 경계를 넘어(Beyond all Borders)! (*큰 소리로*)

(박수)

에우도: 필리핀에서 젠 페스트를 위해 일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바올로와 카스텔간돌포에 감사 드리고, 조금 후에 젠 페스트에 대해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3.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 하루를 바꿔 주는 주사위 던지기

이제 여러분에게 이 상자를 볼 것을 청합니다. 보이나요? 주사위로 가득합니다. 이 주사위는 좀 특별한데, 아마 모두가 이 주사위에 대해 알겠지만, 놀라운 것으로, 평화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각 면에는 예를 들어 모두를 사랑하자, 기쁨과 슬픔을 모두와 함께 나누자 라는 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주사위 놀이를 하는데, 던져서 나오는 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한 번 해 볼까요? (주사위를 던짐) 봅시다…… "모두를 사랑하자" 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코르도바에서는 이 주사위로 하나의 혁신을 이루고자 했는데, 한 번 볼까요?

(음악)

페르난다 오 테로- 포콜라레 (여): 3 년 전 합동전화에서 헝가리에서 평화의 주사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보고 코르도바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및 청소년 인권위원회와 함께 우리가 접근할 수 없었던 코르도바 외곽에 도달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곳에도 평화의 주사위를 제안하기 위해서였는데, 평화의 주사위가 단지 하나의 상징만이 아니라 생활한 경험으로 "보편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학교의 선생님들과 아이들 목소리)

모니카 페레이라- 교장 (여): 앞날이 창창한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지닌 모든 가능성을 펼쳐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 삶과, 존재 그리고 그들 신체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게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다양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몇 명은 이미 대학에 다니고, 다른 아이들은 고정된 직업을 가졌지만, 다른 길을 선택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두 명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면, 특히 먼저 사살된 두 형제 중 하나였던 루카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었지만, 도둑이나 나쁜 아이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그들의 학교 진학 면에서 취약했던 점마저도 내 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해 내지 못했고 지금 그들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양성방향을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평화의 주사위는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으며 어디에 도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고, 이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큰 주사위가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보세요. 이 것을 목표로 삼읍시다. 우리 사이에 평화가 없으면 다시 던집시다. 우리가 이 주사위 놀이를 한다면 왜 평화가 깨졌는지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도록 도와 줍니다.

리카르도 세이 루티, 코르도바 보좌 주교:남: 포콜라레의 페르난도와 굴리엘모가 내게 (주사위)를 가져왔을 때, 사람 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보기 위해 책상 위에 놓고 던져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 주 수요일 오전에 교구 주교관 평의원 회의를 위해 모이는데, 한 번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주사위를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는 “던져 봅시다”라고 했고, 나는 “이 것은 개인적인 것이니 각자가 던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일하는 모임 때,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오는 것을 적어도 모임 때 만이라도 함께 살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보다시피 주사위에는 모두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 좋은 놀이입니다.

주사위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무엇일까요? 정말 작고, 단순한 것이지만, 하루 종일 우리 태도, 우리의 행동들을 바꿔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사위를 던지고 “모든 이를 사랑하라” 는 말이 나와도 그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임을 모르지만, 모르면서도 이미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 것이 바로 평화를 위한 주사위의 아름다운 점입니다. 누구든지 던질 수 있고, 누구든지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

(박수)

4.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연결

에우도: 주교님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 “Cualquiera lo puede hacer…”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이 다르고, 삶에 대한 시각이 다르고, 정치적 입장이 서로 상반된다 하더라도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카탈로냐와 스페인 전체에서 살고 있는, 가정, 직장…… 그리고 우리 공동체 내에도 존재하는 대조적인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바르첼로나로 가 보겠습니다. Ciutat Nova 잡지사 사장인 죠셉 보필이 연결됐습니다. 죠셉 어떻게 되거나요?

죤셉: 차오 에우도, 모두에게 인사 드립니다! 스페인 운동 공동체 모두의 애정 어린 인사를 표현 할 수 있는 이런 나눔의 기회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에게 도달 한 많은 일치의 메시지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이런 예민한 순간에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느낍니다.

10 월 1 일의 카탈로냐 독립에 관한 투표 전과 후의 최근 1 달간은 충격적이었고, 우리의 삶과, 기준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미디어의 양극화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격하게 합니다. 카탈로냐와 스페인 전체에는 독립을 원하는 이와, 원하지 않는 이, 여러 중간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도 시험에 들었지만…… 동시에 이는 하나의 도전, 하나의 은총, 하나의 부르심 임을 느낍니다. 끼아라가 2002년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주위에 빛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제안 했던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증거하려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이에서. 각자가 지닌 현실, 각자의 스토리, 각자의 정체성, 각자의 두려움 등을 잘 받아들이며, 좀 더 솔직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sonodialogo’ 표어는 스페인 전체 운동 대표들 사이의 깊은 경험에서 나온 결실입니다. 이 노력은 많은 작은 경험들을 실천하게 해 주었는데, 우리 마리아폴리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지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중요성과 고통, 한 심각한 시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형제로써, 같은 식구로써,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써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원의가 더 강합니다. 항상 더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여러분의 힘을 믿습니다.

에우도: 당연하지요! 우리 모두의 일치를 약속드립니다!

(박수)

5. 그로타페라타 – 이탈리아. 줄리오와 피나: 매일 매일 다시 반하기……

에우도: 어떤 때는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 것도, 표면적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나와 줄리오의 스토리입니다.

(녹음: 노래 “당신을 위한 노래” 야!

줄리오 노래 녹음: “Quando sentirai che in te la speranza sta morendo ormai ….”)

줄리오 차로키 (남): 이제는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아서 지금은 더 이상 노래를 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늘 노래를 했었지요……

(음악)

어느 날 극심한 두통을 느끼며 일어났지만, 직장에 가야 했지요. 한 동료가 내게 “줄리오 몸이 안 좋은 것 같아”라고 하기에 “왜 그렇게 말해?” 라고 했더니, 나를 세면 실로 데려가 거울을 보게 했는데, 내 입이 여기까지, 이 쪽까지 돌아가 있었는데, 나는 아무 것도 느끼지 못했었어요. 종합 병원에서 내게 “뇌졸중”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작이 되었지요.

(음악)

피나 차로키 (여): 그 날 아침에 그를 마중하고 나서 문을 닫으며 나 자신에게 “내가 정말 멋진 남자를 만났지”라고 했어요. 나중에 그와 함께 일하는 우리 친구에게서 그 전화가 왔을 때,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좀 놀랐어요. 그래서 두 명의 친구와 함께 로마에 갔더니, 내게 즉시 그를 보여주었는데, 더 이상 아침에 봤던 그 멋진 남자가 아니었어요.

뇌졸중이 그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알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한 순간,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임을 직감했어요.

(음악)

얼굴이 정말 변형된 것을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멀리서 들리는 소리)*

그리고 내 내면에서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 주심을 느꼈어요. 우리는 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항상 내 안에서, 우리 사이에서, 다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기 때문이었어요. 내게 그 것은 남아 있는 것 같았어요. 줄리오는 바뀌었지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아니었지요. “가장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은 살아 있었어요.

줄리오 (남): 나는 팔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팔이 있긴 하지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왼쪽 다리도 움직이지 않아요. 서서히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나는 예전과 같은 삶을 계속해 갈 수 없음을 보게 되었지요.

피나 (여): 22 년이 지났는데, 쉽지 않은 세월이었어요. 우리는 매일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 가야 했어요. 계획했던 것이 무산되곤 했어요. 줄리오는 모든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를 돕기 위해 딸들과 함께 한 쪽 팔로만 옷을 입는 연습도 하곤 했던 기억이 나요. 혹은 치약을 느슨하게 펴서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 놓곤 했어요 [n.d.r. 손]…… 끼어드는 이런 한계들과 동거하는 것을 배워가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매일 서로에게 다시 반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고 하겠어요.

(사진을 보는 동안 목소리가 깔림 …… 가능한 만큼 만 통역할 것……)

피나 :여: 줄리오 이거 기억나요?

줄리오 (남): 응.

피나 (여): 이것 좀 봐요…….

피나 (여):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몸으로 모든 도전들을 살아 냈어요. 우리는 함께 해 낼 수 있겠지요? 늘 해낼 수 있겠지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 낼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줄리오? ...

줄리오(남): 내게, 끼아라와 함께 했던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선택은, 근본적인 것이었어요.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항상 뒤돌아 보지 않고, 예전에 그랬듯이 더 이상 뒤돌아 보지 않고 앞만 보았고, 믿었어요.....

피나 (여):우리는 믿었어요.

줄리오 (남): 그리고 나는 하느님께서 끝까지 나를 앞으로 이끌어 주셨으며, 아무 것도 부족하게 하지 않으셨고, 모든 것을 할 힘을 주셨음을 보았어요.

음악

피나 (여): 당신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니 병원에서 5 개월이 지난 후에, 우리 딸 아이가 친구들과 프라스카티에 갔다 돌아왔던 때 기억나요. 돌아왔을 때 내게 “예전에는 없었던 건지, 아니면 내가 보지 못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녁에 프라스카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했지요.

줄리오 (남): 정년까지 7년이 남아 있었는데, 그 7년간 직장에 가는 데 있어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때까지 나는 직장에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녔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나는 영원하신 아버지께 “내게는 세 명의 자녀가 있고 공부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정년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아시지요?”라고 말씀 드렸고,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도움을 주셨어요. 매일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한 동료가 내게 “줄리오 내가 매일 아침 데리러 오고 집에 데려다 줄게.”라고 했어요. 7년간 매일 그렇게 해 주었어요. 그렇게 정년 퇴직을 했고, 마음 편히 퇴직자가 되었어요. 나는 내 동료에게 기념비라도 세워주고 싶어요!

(음악)

피나 (여): 예를 들어 이런 리듬에 습관이 되는 것이 어려웠어요. 줄리오 는 갈수록 느려졌고, 나는 오히려 매우 활동적이거든요.....

줄리오 (남): [n.d.r. 말함] 피나는 재빠르고, 재빠르고, 힘이 넘치고, 갑시다, 갑시다 하지요.

피나 (여): 그런데 이 것 또한 아름다워요. 줄리오는 내가 더 빨리 하게 하라고 주입시키는 것을 견뎌야 했고, 동시에 나는 다른 이의 보폭을 따라 걷는 것도 사랑임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밖에서 들리는 여자 목소리: [n.d.r. 건배를 하며] 차로끼들을 위해!

모두 함께: 차로끼들을 위해!

줄리오(남): 우리 모두를 위해!

피나 (여):

우리 친구들을 위해!

(박수)

에우도: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안아주고 싶어할 것이라고 믿는데, 내가 모두의 이름으로 안아주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안아 주러 감- 박수)

6. 아이보리 코스트, 만과 연결

에우도: 아이보리 코스트로 옮겨 갑시다. 25 년 전에 만 근교에 마리아폴리 소도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축제와 감사의 기간입니다. 이 기회에 빅토리아 마리아폴리 소도시에 베닌, 브루키나 파소, 카메룬, 케냐 그리고 이태리와 스위스, 프랑스에서 종교와 사회 인사들이 왔습니다. 아무튼 큰 축제입니다!

이 마리아폴리 소都市는 국경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내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평화와 화해의 장이 되었습니다. 치랄로,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고 또 미래를 내다보고 싶습니다. 치랄로 인사 드립니다!

치랄로 아치아 (여): 이 곳은 축제 분위기 입니다. 모두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2002 년도는 마리아폴리 소도시 삶의 한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만은 표적이었고 모든 주민들이 피난했습니다. 대사들은 자국민들이 나라를 떠날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 백성과 함께 남기를 원했습니다. 마리아폴리 소都市는 몇 달간 약 3000 명의 사람들을 맞아들였습니다. 한 평화의 오아시스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전쟁 중인 두 파벌의 부상자들을 맞아들였고, 크리스천과 무슬림을 받아들였습니다.

분쟁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병원, 학교, 사회 의료 센터 등 구체적인 사업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평화의 관계를 엮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주변 지역에서 약 80 명의 사람들이 다녀가며, 소都市는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상주하는 사람은 연령, 국적이 서로 다른 20 명 정도인데, 다양성이 하나의 부가 될 수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축제는 내일 25 년간 하느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해 감사 드리는 엄숙한 미사로 끝맺을 것입니다.

에우도: 감사합니다! (박수)

7. 월리스와 푸투나의 플래시 뉴스

에우도: 태평양의 월리스와 푸투나로 가봅시다. 지역 TV 소식을 보내 왔는데, 이를 통해 독일 본에서 있었던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회의 결론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스피커 (여) (in italiano): 월리스와 푸투나는 태평양의 3개의 다른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세 개 섬들로 이루어졌고, 호주 동쪽 해안으로부터 약 4.000 km 떨어져 있다. 한 때 놀라울 만큼 다양한 숲이 울창했던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거의 황폐화되어 땅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환경 문제는 세계적이며 광대하다. 그 영향은, 지상 천국이라고 상상하는 이런 지역까지 미친다.

주민들은 이 티비 뉴스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들의 몫을 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젊은이 (여) (in francese): 나는 박스들을 모으는 중인데, 캔도 반드시 분리해야 하는데 압축하여 재활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성 1 (남) (in francese): 이와 같은 환경보호 활동은 질병퇴치에 도움을 줍니다. 오늘 날에는 감염원을 모르는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콜레타 (여) (in francese): 뉴 칼레도니아에서, 내 친구들과 함께 한 환경보호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스피커 (여) (in francese): 포콜라레 운동은 자연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이 문제에 동참하게 하고, 둘로 갈라진 마을이 그들 책임자들과 함께 서로 가까워지게 한다. 바이랄라에서는 책임자들과 함께 이 계획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음성 2 (남) (in francese): 제가 이 마을의 대표가 되고부터 정기적으로 마을 청소 날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콜라레 활동들에 만족합니다. 그들은 우리 마을의 청소 시간에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평화를 건설하는 필수적인 활동을 지원합니다.

음성 3 (여) (in francese): 포콜라레 이상은 일치를 건설하는 것이고, 일치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가 관습 때문에 서로 갈라져 있음에도 구체적인 활동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과 다른 마을들을 일치시켜 주는 것이 있으니, 이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하고 있는 활동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에우도: 태평양의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박수)

8. 카를로 카사벨트라메: 관계를 뛰어가기 위한 여행 중……

에우도: 며칠 전에 우리는 여기 계신 카를로의 90 세 생신을 축하했습니다. 카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 카를로는 이탈리아 토리노 출신이지만 50 년 이상을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카를로 카사벨트라메 (in italiano): 내 꿈은 늘, 여행하며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호텔을 싫어했는데, 세상을 알고, 사람들과 섞여 지내면서 함께 일하고, 함께 살기 원했기 때문으로 결국 50 년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1962 년 그리스도 왕 대 축일에 브라질에 도착해서, 가라능의 첫 마리아폴리에 참석했는데, 그 것이 영화와 같은 모험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레시피에서 시작해서 사탕수수 밭 사이의 300 킬로미터를 가는데 16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브라질의 세상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내 안에, 저변 깊숙이에 피에몬테 지역의 사고 방식이 있었기에 그런 괴리감이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풍요로운 경험이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직장도 구했는데, 내 생애 처음으로 참으로 많은 봉급을 받아서 (잠깐 멈추고)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거처도 마련하고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셋이었는데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도를 놓고 9 백만 시민을, 너 3 백, 너 3 백……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로운 토요일, 일요일에 그들과 얘기하러 다녔는데, 우리는 언어도 몰랐기 때문에 이태리 사제나 몇 사람을 찾아 다녔습니다.

나는 여행을 원했었는데 1 달에 5 천 킬로미터 정도를 버스로 여행했었습니다.

페루에서 시작해서 멕시코까지, 15 개 국을 돌보았던 콜롬비아에서의 12 년 후에, 칠레에서 6 년을 지냈습니다.

아직도 멕시코, 칠레 등 지역과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한 사람과의 우정은 잘라버릴 수 없기에 내게는 예외적인 풍요로움이었다. 세상의 1/2 과 이메일, 스카이프 등으로 관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포스트: “콜리나스 공동체가 환영 인사를 보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사이에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카를로 감사합니다!”)

(박수)

에우도: 카를로 당신 같은 분은 멈추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요! 다시 한 번 축하 드립니다!

9. 필리핀, 다바오 – 비디오 게임 장소에 우정을

에우도: 많은 때, 우리는 사회 문제들 앞에서 막혀버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필리핀의 라니가 자신의 큰 열정인 축구를 통해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스피커(남): 우리는 필리핀의 주요 도시 중 하나 인 민다나오 섬에 있는 다바오 시에 있다. 다바오는 “과일들과 꽃들의 도시”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큰 긴장감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현 필리핀 대통령인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시장으로 철 주먹으로 통치했고, 여러 그룹의 이슬람 분리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도시 이다.

불과 1 년 전에 시장에서 폭탄이 터져 10 명이 사망하고 50 명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이 도시에서부터 우리의 스토리가 시작된다.

라니 리 저스 토 (여) (in tagalog): 저는 라니이고, 부카스 팔라드의 축구 코치 중 한 명입니다. (축구 하는 모습)

검정 자막 위의 글씨: 부카스 팔라드의 축구 팀은, 커가는 비디오 게임 중독 어린이들의 문제에 대한 답으로 태어났다.

스피커 (남): 이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으로, 아이들은 방과 후에 인터넷 포인트에서 시간을 보낸다.

라니 리 저스 토(여) (in tagalog): 아이들은 비디오 게임 중독으로 인해, 자주 밥도 먹지 않은 채 늦게 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어떻게? 어떤 사회적 활동으로? 친구들과 함께 무엇을 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시 쉬)

나는 축구를 잘 했고, 스포츠는 나를 정말 행복하게 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재정 문제였는데, 나는 실재로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도 허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들이 경쟁할 수 있을까? 묻게 되었습니다. 너무 야위어서 한번 밀치기만 하면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웃어 넘겼고, 게임을 즐겼습니다.

알빈 저스 토 (남) (in tagalog): 여기서는 팀 워크의 가치도 배웁니다. 이는 그룹 게임이 가르치는 많은 것들 중 하나입니다.

라니, 여 (in tagalog): 우리는 축구 게임을 할 때 무엇을 배워야 할 지만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정이 어떤지, 식사는 제대로 하는지……

단순한 멘토나 코치로서 만든 진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이 부카스 팔라드의 팀을 결성 한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를 포함하여 아이들의 부모들도 자신들의 자녀 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팀 전체를 위해 음식을 가져다 주며 매일 우리를 지원해 줍니다.

메리 솔 알베로, (여아) (in tagalog?): 축구가 좋은 것은 친구들과 노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 다른 지역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레아 바 다르, (여아) (in tagalog?): 라니와 알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줘요. 나는 자기 훈련도 배웠고 친구 관계도 개선하고,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내는 것을 배웠어요.

라니 (여): 나는 축구를 좋아하게 됐고, 같은 열정을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 열정이 나의 삶에 의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장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도전에 직면 할 때마다, 나는 아이들 안에서 나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인내심을 갖고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음역)

에우도: 라니의 활동은 “팔을 벌리고”라는 뜻인 부카스 팔라드 본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부카스 팔라드는 필리핀의 여러 도시에서 30 년 이상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새 가정 활동 "인, AFN - ONLUS 가 49 개국에서 수 많은 활동들을 지원하며, 11.000 명의 아이들을 위한 원격입양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포콜라레 운동의 또 다른 팔인 "일치된 세계를 위한 활동 " AMU 는 NGO 단체로, 현재 32 개국의 35 개 개발 사업을 돕고 있다는 것을 웹 사이트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AFN 과 AMU 를 지원하는 것은, 내일 하게 될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주창한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초대에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포르토 리코 공동체의 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 마리아 허리케인으로 황폐화된 상황에서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포르토 리코 공동체에서 특별한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형제들로부터 받은 기도와 도움에 감사 드립니다.

여러 분의 메시지에 감사 드립니다! (박수)

10. 끼아라 루빅: 목표, 일치된 세계

에우도: 어디로 가야 할 지 모르는 사람은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못합니다. 삶의 목표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이제 끼아라가 이를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 보게 될 메시지는 1987 년 젠 운동 20 주년에 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를 기억시켜줍니다.

끼아라 루빅: 나는 긴 담화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 인사 하기 위해 왔어요. 이번에는 오지 않을 수가 없었으니,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올 해에는 20주년을 기념하기 때문이에요. 20년은 무시할 수 없으니, 여러 분 중 여러 명은 아직 스무 살이 안됐지만, 젠 운동은 20주년을 맞았기 때문이에요.

20년 전에 젠 운동이 태어났어요. 젠 운동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무엇이 태어났나요? 포콜라레 운동의 제 2세대가 태어났던 것이에요. [...]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거대한 카리스마를 주셨어요. [...] 카리스마란 무엇 인가요? 성령의 커다란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여기에 수천 가지 방법으로 강한 입김을 불어 넣어주셨고, 우리는 이 정신을 그대로 온전히 후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는 20년 전에 상징적으로 한 깃발의 형태로 전해 주었던 것이 기억나요. 우리의 깃발을 전해 주었는데, 깃발은 모든 것을, 전통과 역사, 문화 등을 뜻하므로 이상 전체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었어요. [...]

두 마디로 요약하여, 깃발 한 면에는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고 썼는데, 이는 다른 면에 적힌 목표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곧 일치된 세계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인 버림받은 예수님이셨어요. [...]

이 20주년 끝에, 세상에서 젠 축제가 불어나는 것을 볼 것이에요. [...] 마치 하늘로 싸 올려지는 많은 불꽃 놀이처럼 느껴지는데, 불꽃 놀이가 아니라, 하느님 사랑의 불꽃을 하늘로 싸 올리는 것이에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수 많은 영혼들을 정복하여, 하느님은 참되고, 살아계신 분이시며, 그 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증거해 보이기 위함이에요. [...] 그러니 버림받은 예수님께 우리의 충성심을 재 확인 시켜드리고, 우리 자신을 재 봉헌해야 해요. 만일 여러분이 버림받은 예수님께, 여러분 깃발에 재 봉헌 한다면, 깃발을 단 재독의 함대와 같을 것이에요.

(박수)

이제는, 버림받은 예수님을 통해 부활하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서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분은 걸어 가시며 정복하시고, 마치 신선한 계곡물이 맑지 않은 것들을 모두 가장자리에 남겨두고 흘러가듯이, 지지분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뒤에 남겨두고 앞으로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이 버림받은 예수님을 산다면, '모든 이가 하나'되는 목표 또한 가까워질 것이에요.

여러분은 일치된 세계라고요! 라고 할 것이에요. 언젠가 한 젠이 [...] "정말 '우트 옴네스'를 믿으세요?"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하느님께서 하느님께 청하신 것이라면,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인 하느님께 청하셨는데, 어떻게 하느님께서 안 된다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늘 믿는 것은, 역사는

하느님 손에 있으며, 그 분께서 이루어가신다는 것이에요. [...] 그러니 우리는 일치된 세계를 믿어야만 해요. [...]

여러분에게 손에서 손으로 전달된 카리스마를. [...] 이 카리스마의 조각들을 후세들에게 온전히 다 전해 줄 수 있도록 모두 다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선두에 있고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카리스마를 전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젠 운동 만이 아니라 사업회의 다른 운동과의 경험들을 보아서도 여러분은 기적들을, 하느님 은총의 기적들을 보게 될 텐데,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다른 신들은 좀 강하긴 하지만, 전능하지는 않고, 하느님 만이 유일하게 전능하신 분이므로, 기적을 보게 될 것이에요.

[...]

다시 한 번, 여러 분 가까이 있을 것과, 여러분 한 명 한 명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실 것을 약속해요. 성모님께서서는 여러분이 항상 여기서 힘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이 것이 얼마나 사실인지를 아세요. 기쁘게 살고, 기쁨을 가져가고, 하느님께서서는 기쁨 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세요. 차오 젠들!

(박수)

11. 카스텔간돌포의 남녀 젠들과 마리아 보체 (엠마우스) 연결

바올로: 여기 카스텔간돌포에는, 끼아라의 말이 좀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는데, 30년 전에 했던 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현실적으로 느껴졌는데, 단지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살고 있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세상의 젊은이들에게 2018년 젠 페스트의 의미가 어떨지 하는 뜻에서도 그랬습니다.

지금 나는 엠마우스와 다른 젠들 옆에 있는데, 젠 페스트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쥬세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쥬세페는, 이태리 사람이지요?

쥬세페: 네.

바올로: 쥬세페, 2018년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인데, 유럽을 벗어나서 하는 첫 젠 페스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마닐라, 아시아 입니까?

쥬세페: 무엇보다 아시아가 전 세계 젊은이들 60%를 품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능한 한 많은 이들이 아시아로 간다는 것은 미래를 바라 보고, 보편적인 형제애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올로: 여러 분은 젠 축제를 위해 명확한 표제인 “모든 경계를 너머” 를 즉 한계, 경계를 넘어 가는 것을 선택 했습니다.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은데, 이 것은 한 아름다운 슬로건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요?

쥬세페: 아니, 당연히 다른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경계를 넘어 가는 것 "은 우리 젊은이들이 대면해야 하는 가장 큰 도전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간다는 의미는 선입견이 될 수 있는 개인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기도 하지만, 문화적 차이 같은 사회적인 경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계들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를 분리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는 기회로 삼아 젠 축제에서 그 일치된 세계를 보고자 합니다.

바울로: 이미 존재하는 일치된 세계라! 이제, 엠마우스 차례입니다.

좀 전에 마닐라에서 했던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젠 페스트 신청하셨습니까?

엠마우스: 당연하지요! 당연히 신청했습니다.

바울로: 그러니 가실 건가요?

엠마우스: 물론이지요! 하느님께서 원하셔야겠지만, 별다른 일이 없다면 가게 될 것입니다. (박수)

바울로: 박수는 이에 대한 기쁨을 포함합니다.

엠마우스, 우리는 젠 축제가 젊은이들을 선두로 하는 약속임을 보았는데, 왜 모든 연령에 속한 우리 모두도 젠 페스트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엠마우스: 우선 나는 이 기회를 빌어 모든 젊은이에게 큰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아시아에 만 명, 아니 그 이상의 젊은이들을 데려가고자 하는 이 젠 축제를 하려는 것은 참으로 용감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용감한 행동은 ‘60년대부터 끼아라가 던진 “전세계의 젊은이들이여 일치하세요”라는 권고에 대한 현 시대 젊은이들의 응답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권고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것으로 삼고, 발동시키겠지만, 단지 젊은이들 에게 뿐만이 아니라, 끼아라를 따른 모든 이에게도 반향 됩니다. 왜 이 권고를 따라야 할까요? 끼아라는 우리에게,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우트 옴네스’ 일치된 세계를 목표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표는 아직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첫 세대 만으로는 달성하지 못했고, 할 수 없었으며, 제 2 세대 만으로도 할 수 없을 것이니, 목표는 거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세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일치된 세계의 이상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해야 하며, 세대들이 모두 함께 일치하여 이 순간 그들에게 가능한 단계들을 수행하며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는 이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젠 축제는 젊은이들에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청을 했고, 가기 원하며, 많이 참가하기를 바랍니다.

바울로: 제가 잘 알아들었는지 봅시다. 분명히 우리 모두가 다 마닐라에 갈 수는 없겠지만, 모두가 젠 축제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엠마우스: 당연합니다! 나는 정말 모두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나는 봉쇄 수도원에 있는데 뭘 할 수 있겠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도하세요! 젠 페스트를 위해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박수) 혹은 누군가는 내게 “나는 병들어서……” 라고 할 것인데, 하느님께 거기 있는 모든 젊은이들, 전 세계를 위해 네 고통을 바쳐드리세요, 단지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젠 축제를 위해 많은 활동들을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모두 함께 합시다. 환영하는 것을 돕고, 젊은이들이 그들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을 돕고, 재정적으로 불가능해서 축제에 참석할 수 없는 젊은이들을 경제적인 기여로 돕고, 우리는 수중에 적은 돈 밖에 없겠지만 누군가가 민감해지면 더 크게 도움을 줄 수도 있으니 스폰서를 찾읍시다.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우리의 뭇을 다 합시다.

젠 페스트는 나의 것이고, 우리의 것입니다.

바올로: 아름답습니다! 젠 축제는 우리의 것입니다. 엠마우스, 우리에게 한 아름다운 과제를 주었고, 우리 모두는 함께 이것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엠마우스: 모두 함께, 모두 함께 해 나갑시다. 실질적으로는 단지 만 명밖에 참석할 수 없더라도 전 세계의 우리 모두가 함께 할 것입니다.

바올로: 감사합니다, 엠마우스.

그럼 헌신의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봅시다. 키아라는, 젠 축제를 하게 될 나라, 필리핀에서 왔는데, 우리가 함께 일하기 위해, 함께 젠 페스트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이 여덟 달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키아라: 맞습니다. 엠마우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지만, 세 가지를 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지역 젠 축제입니다. 젠 페스트를 조직하고, 거기서 평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합시다.

둘째는,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젊은이들이 젠 페스트의 아름다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필리핀 마닐라로 보내는데 모든 공동체가 도움을 준다면 참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시다시피 여기 셔츠가 있는데,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이미 준비를 했으니, 혹시 이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여러분 지역의 “point person” [n.d.r. 안내원] 에게 물으면 될 것입니다.

바올로: 인터넷 사이트도 있지요?

키아라: y4uw.org/genfest (박수)

바올로: 좋습니다. 이 박수는 이 강당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이쯤 되면 나도 셔츠를 하나 사지 않을 수 없지요. 보세요 이 것입니다. 내 사이즈이기를 바라는데, 아니면 교환하지요. 아무튼 나도 사겠습니다. 이 것이 젠 페스트에 하는 저의 첫 기여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젊은이들과 엠마우스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 모두와, 여러분 모두 이 젠 페스트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기 바라며, y4uw.org/genfest 사이트를 기억시켜 드립니다.

카스텔간돌포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12. 끝 인사

에우도: 이 합동전화 끝에 이르렀는데, 우리에게 도착한 다른 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폴란드에서 온 것입니다. “오늘 저녁은 참으로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감사 드립니다.” 프란시스 트렌사크 추기경과 여러 교회의 주교들이 폴란드의 카토피치에서.. (박수)

자신들의 스토리와 경험, 모든 종류의 도움을 준 분들과 합동전화에 도착한 경제적인 도움에 대해서도 감사 드립니다. 그 어떤 기여도 적은 것은 없습니다. 한 잔의 커피 값에 미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감사 드립니다! (박수)

끝 맺기 전에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내 손에 파비오 차르디 신부님이 펴낸 한 아름다운 “생활 말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키아라의 작품으로 이루어진

14 권 시리즈 작품 중 첫 번째 책입니다. 1944 년부터 2006 년까지 끼아라가 쓴 365 개의 생활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1 월 23 일부터 이태리 서점에서 판매될 것 임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끝으로 인사 드립니다.

다음 합동전화는 2 월 24 일 (이태리 시간) 오후 8 시 입니다.

차오, 모든 분께 깊은 포옹을 보냅니다.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박수)